

청년 이용자들의 인터넷을 통한 '이접적' 커뮤니티 형성

- 신주쿠·가부키초 '도요코 세계'를 사례로 -

야마우치 모에 (게이오대학)

1. 문제의 소재

본 보고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루어지는 청년 이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이 현실의 구체적인 장소와 왕복하면서 이루어지는 양상을 사례로부터 지적함으로써 청년층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사회학적 식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PC와 휴대전화를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가 발전함에 따라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한 인터넷상의 커뮤니케이션에 사회학적 관심이 쏠려 왔다.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생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상에서 관찰되는 젊은층 이용자에 의한 사진, 동영상 게시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연구 대상이 이행하고 있다(아마노 2019, 사사키 2022 등).

청년층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선행 연구에 대해서는 교육사회학자 도이 다카요시(2016)가 지적하는 '상시 접속 사회'가 분석 개념으로서 유용성을 가진다. 휴대 전화를 갖고 있음으로써 중고생과 같은 청년 이용자가 장소나 시간을 불문하고 인간관계에 접속할 것을 요구받는다는 도이가 그려낸 상황은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으로 이행한 현대에도 일정한 유효성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실제로 소셜 미디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눈을 돌려 보면, '세계(界隈)'라고 불리는 커뮤니티가 소셜미디어 및 현실의 특정 장소를 왕복하면서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본 보고에서는 그러한 커뮤니티 중에서도 특히 최근 2, 3년 사이에 성립한 '도요코 세계'라고 불리는, 신주쿠·가부키초의 신주쿠토호빌딩 옆에 모이는 청년 커뮤니티에 착목한다. 도요코 세계에서는 2021년 무렵부터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스 미디어의 뉴스에서도 자주 다뤄지면서 사회적 주목이 높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사례

2.1 도요코 세계에 대해

도요코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는 사사키 치와와(2022)에 따르면, 도요코 세계의 발생 시기는 2018년부터 2019년 무렵이다. 트위터 상에 해시태그를 붙여 셀카 사진을 게시하는 '셀카 세계'의 청년들이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 약속 장소로 자주 이용하던 곳이 신주쿠토호빌딩 부근이었다. 여기에 인근 음식점의 바텐더와 스카우터(호객꾼), 호스트 등이 더해져 도요코 세계의 원형이 탄생한다. 보고자는 2018년 무렵부터 트위터 상의 셀카 세계를 관찰하고 있는데, 도요코에 있는 젊은이가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도요코 세계'라는 말과 함께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2020년 무렵, 특히 코로나 유행 이후였다.

2021년에는 대중매체에서 도요코 세계를 다루기 시작한다. 주간지에서는 일찌감치 6월에 도요코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뤘다(『FRIDAY』 2021년 6월 25일). 또 10월에 발생한 도요코 관련 체포 사건이 대형 신문에서도 보도되었고, 이후 도요코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TV에서도 보도되었다. 게다가 오사카의 '구리시타 세계', 나고야의 '돈요코 세계'라는 동질의 커

커뮤니티에 관해서도 미디어에서 보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보도에서는, 도요코 세계에 모이는 청년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설 자리가 없고 고독한 인물이라는 이미지로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도요코는 현실 생활에서 갈 곳 없는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본 보고에서는 기존의 보도가 쟁점화하는 도요코 세계의 대체적인 장소성을 소셜 미디어와의 왕복이라는 관점에서 보충한다. 그를 위해 보고자가 2022년 6월에 인터뷰를 실시한 도요코에 다니는 여성(이하 A)의 이야기를 참고하겠다.

2.2. 인터넷과 현실 세계의 상호 보완

A에 따르면 현재 도요코 세계에서는 틱톡에서 게시된 동영상을 본 중고생 이용자가 흥미를 느껴 가부키초를 방문하는 패턴이 많다. 특히 이 세계 내에서 유명해진 남성은 인플루언서에 가까운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모이는 팬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A 역시 그중 한 명으로, 틱톡으로 알게 된 이 세계의 유명한 남성(이하 B)을 만나기 위해 도요코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 A는 동영상을 보고 첫눈에 반해 B에게 앱 상에서 다이렉트 메일(이하 DM)을 보내면서 알게 되었다. B는 “DM에서는 조금(보고자 주: 조금 대응의 줄임말로, 무뚝뚝하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상냥하다”. A는 주말마다 도요코에 다니게 되었고 B 이외의 사람과도 친해졌다고 한다.

도요코 세계에서 알게 된 사람과는 “실제로 만나서 트위터를 교환하고, 좋아요를 서로 눌러주거나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A는 트위터 상과 현실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오가며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동시에 “다음에도 있으면 좋겠다”라고도 말해, 매번 같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모습을 통해서도 도요코 세계의 구성원이 유동적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A는 도요코 세계의 사람에게 알려주는 트위터 계정과는 별도로 셀카 세계 계정도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정기적으로 셀카를 올리고 있다. “도요코에 가니까 셀카 계정은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보고자의 질문에, “그거 많이 생각해 봤는데”라고 말하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니까, 더 자주 갔으면 친구들도 더 많이 생겼겠지만, 세계민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집에 있을 때는 외로워서 대화 상대가 있으면 좋겠다”며 셀카 계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어디 세계의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도요코 세계 사람이다”라고 대답하는 A의 이야기에서는 소셜 미디어와 현실의 장소를 오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고독을 채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셀카 계정으로 연결된 사람을 도요코에 같이 가자고 권유한 적은 없냐는 질문에는, 셀카 계정의 사람이 만나고 싶다고 하면 “도요코에 와 주면 만날 수 있다고 말할 생각은 있지만”이라고 하면서도, “셀카 계정과 도요코를 연결해서 셀카 계정의 사람을 만날 생각은 없다”라고 말한다. A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인터넷 친구를 만날 때 파출소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덧붙였다. 네 친구를 만날 때 파출소 앞에서 만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여기에서는 셀카 계정의 아는 사람들과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에서 관계를 끝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만약 현실에 만난다면, 도요코가 약속 장소가 된다는 것은 도요코가 인터넷의 익명성을 담보하면서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A에게 심리적인 안전성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고찰

인류학적 방법을 사용해 미디어 연구를 실시하는 다나 보이드(2014=2014)는 인터넷상에서 교류하는 청년들의 연결을 ‘네트워크화된 퍼블릭’이라고 이름 붙였다. 보이드가 이 표현을

통해 주장하는 바는 과거 미국의 쇼핑몰이나 공원이 수행한 청년들의 공공권적 역할을 소셜 미디어라는 인터넷상의 퍼블릭이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도요코 세계의 사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화된 커뮤니티가 인터넷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의 장소를 오가면서 새로운 구성원을 획득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 도시연구자의 난고 요시카즈(2016)의 '이접적 군중' 개념을 보조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난고는 헬러윈 당일에 가장을 하고 시부야의 스크램블 교차로에 모인 청년들이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려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들며, 인터넷과 현실 공간의 오가는 실천임을 지적한다. 나아가 어빙 고프먼의 '이탈' 개념을 원용해 청년들의 모습을 인터넷과 현실의 장소를 둘러싸고 접속과 이탈을 반복하는 이접적 군중으로 그려낸다.

난고가 제시한 시부야의 헬러윈 사례는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군중이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도요코 세계의 사례에서는 인터넷과 현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접속과 이탈이 장기적인 커뮤니티의 지속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도요코 세계의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유동적이고 항상 교체되면서 커뮤니티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도요코라는 현실의 장소에 모이면서도 그곳에서는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익명성이 담보되고 있다. 익명적이라는 것과 실제 만남을 양립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도요코 세계라는 이접적인 커뮤니티인 것이다.

4.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소셜 미디어와 현실의 특정 장소를 오가면서 형성되는 커뮤니티의 사례로 도요코 세계를 다루었다. 도요코와 소셜 미디어를 오감으로써 형성, 유지되는 것은 이접적인 커뮤니티라고 하는 익명적이면서도 현실에 모이는 집단이다.

위의 식견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스마트폰이나 소셜 미디어를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삼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이접적인 행동의 일반화라는 가능성이 있다. 헬러윈과 같은 일시적인 이벤트나 도요코 세계와 같은 특수한 사례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가지고 소셜 미디어에 날마다 접속하는 청년들에게는 이접적인 행동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다고 하면, 그것들을 커뮤니케이션론이나 상호 행위론으로서 한층 더 정식화할 필요가 있다. 상기의 점을 향후의 과제로 삼아, 보고서에 의한 조사 및 이론적 검토를 계속 진행시켜 나가겠다.

참고문헌

- 天野彬 (2019) 『SNS変遷史——「いいね!」でつながる社会のゆくえ』 イースト・プレス.
- Boyd, Danah (2014) *It's Complicated: The Social Lives of Networked Teens*, Yale University Press (=2014, 野中モモ譯 『つながりっぱなしの日常を生きる——ソーシャルメディアが若者にもたらしたもの』 草思社.)
- 土井隆義 (2014) 『つながりを煽られる子どもたち——ネット依存といじめ問題を考える』 岩波書店.
- 南後由和 (2016) 「商業施設に埋藏された『日本の廣場』の行方——新宿西口地下廣場から澁谷スクランブル交差点まで」 三浦展・藤村龍至・南後由和著 『商業空間は何の夢を見たか——1960~2010年代の都市と建築』 平凡社.
- 佐々木チワワ (2022) 『「ぴえん」という病——SNS世代の消費と承認』 扶桑社.

(번역책임자:김예진)